

#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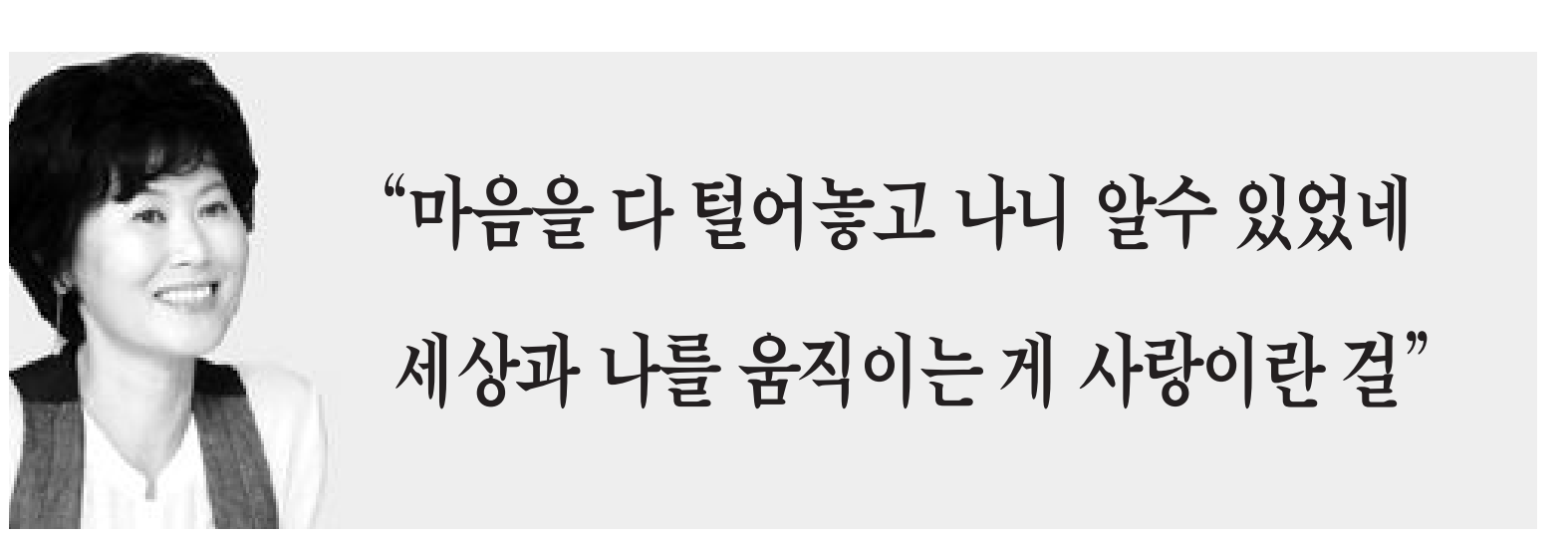
## 공포·스릴러 결정판 추리작가협 '살아있으라'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 이수광)가 매년 여름 펴내는 '올해의 추리소설' 2009년판 '살아있으라'가 나왔다.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원들의 단편을 모은 이번 소설집에는 강형원, 이상우, 한이 등 중견작가는 물론 김주동, 김지하, 최지수 등 '계간 미스터리'로 등단한 신인작가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졌다.

유명 연극배우의 의문의 죽음과 이를 캐내려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의 이야기를 다룬 박하옥의 '살아있으라'를 비롯해 강형원의 '황금거위', 김주동의 '택시', 김지하 '잠' 등 다양한 색깔의 추리소설 11편을 만나볼 수 있다.

(**하남·9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 알수 있었네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게 사랑이란 걸”

### 그건, 사랑이었네

한비아 지음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알 수 있었다.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보였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또렷하게 보았다. 그건, 사랑이었다.”(들어가는 말 중)

‘바람의 딸’로 국제NGO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 잘 알려진 한비아(51·사진) 씨가 자전적 에세이 ‘그건, 사랑이었네’를 냈다.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등 이어 여덟 번째 책.

기존의 책들이 세계의 오지를 누비며 도전 의식을 불태우거나 긴급구호 현장에서 여전사로서 맹활약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다뤘다면, 이번 책은 마치 독자들을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구호 현장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책이다.

격의 없는 형식인 만큼 한비아의 맨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책은 ‘난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날개를 발견한 순간’ 등 총 4개의 장으로 꾸며졌다.

먼저, 1장 ‘난 내가 마음에 들어’에는 우울하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찾아나서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진솔하고 담담하게 담았다. 한비아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전해진다. 또 ‘120살까지의 인생 설계’ ‘첫사랑 이야기’ 등 일기에서나 볼 법한 내밀하고 수줍은 ‘인간 한비아’를 만날 수 있다.

2장 ‘내가 날개를 발견한 순간’에는 언제나 열정과 에너지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한비아의 내면의 고뇌가 엿보이는 글들이 실렸다. 긴급구호 현장에서 만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비틀거리고, 그런 그를 지지해준 하느님 이야기 등 진솔한 고민이 펼쳐진다.

3장 ‘꽃대를 놓치지 않는 법’은 세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가는 한비아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길을 묻는 젊은이들에게’ ‘한비아의 권리는 24권의 책’ ‘이런 성공이라면 꼭하고 싶다’ 등 솔직 담백한 이야기 속에 은은하게 녹아들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던 한비아의 ‘내공’이 숨겨져 있다.

마지막으로 4장 ‘우리는 모두 같은 아침을 맞고 있어’에는 긴급구호팀장으로 일했던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전한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세계 저편의 사람들에게 대해 알고, 알리고, 손을 내미는 방법들이 담겨 있다. 아무리 현실이 고단해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지구 공명의 문제에 대한 한비아의 진정 어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책을 통해 한비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어두운 현실에서도 행복과 용기를 갖고 자신과 솔직히 대화를 하라는 것이다. “난 내가 마음에 들어”라고 천진하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선택하고, “나도 흔들린다”라고 자신의 약한 면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 그리고 온전히 남은 힘을 다해 세상 저편 너의 손길에 필요한 도움을 의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겠느냐”고 그는 묻고 있다.

한비아는 다시 비상을 꿈꾼다. 6월 국제NGO 월드비전의 긴급구호팀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8월 중미권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1년 반 동안 미국 보스턴의 터프츠대학교에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석사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푸른솔·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맞수기업 열전

### 정혁준 지음

365일 환상과 모험의 세계가 있는 곳, 놀이공원의 맞수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에버랜드는 산지개발에서 시작됐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은 1970년대초 비행기에서 내려본 한국의 국토가 유난히 험벗어 산악이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후보지 물색에 들어가 용인, 경주, 보문단지, 추봉령 고개, 수안보온천 주변 등 4곳을 놓고 고민하다 결국 산지녹화를 위해 불모지인 용인을 선택했다.

롯데월드는 “한국 사람들은 일요일에 쉴 공간이 없다”고 생각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생각에서 비롯됐다. 최종 후보지로 서울 잠실일대를 선정했지만 겨울에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것이 문제였다. 결

## 라이벌 기업들의 격전 통해 본 한국경제

국 놀이공원을 실내에 건축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세계 최대 실내놀이공원으로 기념스북에 오르는 영광도 얻었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놀이공원이 탄생하기까지는 오너들의 기업가정신이 있었다는 얘기가.

대한민국 52개 최강 기업들의 라이벌전지바와 인다 스토리를 담은 '맞수기업 열전'이 나왔다.

한겨레 21 경제팀장 정혁준씨가 쓴 이 책은 한강의 기적, 중동신화, IMF 위기극복, IT혁명을 지나 현재 이르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밀을 '라이벌노믹스'라는 렌즈로 명쾌하게 풀어내 관심을 끈다.

바로 떠오르는 맞수기업들이 어떤 경쟁관계를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는지, 그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위기극복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흥미롭게 펼쳐진다.

맞수기업들을 기업이 정산·게임의 룰 전환·진화·경쟁우위·스토리텔링 등 7개의 법칙으로 나눠 테마별로 소개한 점도 이색적이다.

예컨대 경쟁관계인 제일모직과 LG패션은 비싼 것도 싸게 사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전략'을 마케팅에 활용해 성공했다. 제일모직 빈푼은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교복패션인 '프리피룩'을 협찬했고, LG패션은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주인공 김바에 패션을 지원하면서 이들 자신들의 이야기로 판매전략에 활용해 빅 히트를 쳤다.

에버랜드에 이송업선수의 이름을 딴 사자가 등장하게 된 사연,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GM과 갈라섰다 다시 결합한 이유 등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양념처럼 감칠맛을 더한다.

"복잡한 경제현상을 쉽게 와 닿게 재미있게 쓰고 싶었다"는 저자의 바람이 그대로 책에 녹아나 있다.

(**예세·1만5000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새책

### 커버 투 커버-책 읽는 여자=영국 소설가 버트 크레이그의 데뷔작. 서른 살 싱글여성의 복잡하고 깊숙한 내면 세계를 다뤘다. 카드회사의 디자이너인 타나는 어느 날 현책방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저자가 쓴 '가짜 종이꽃'이라는 제목의 책을 접어든다.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다.

(**문학합·1만2천원**)

### 맑은 비람 드는 집=경복궁 근처에 있는 저지자 성보박물관의 관장이 우리나라 금석학의 대가인 홍선 스님이 엮은 한시에세이집이다. 지난 7년 반 동안 박물관 홈페이지에 꾸준히 옛 시를 올리고, 번역을 하고, 거기에 담담히 일상을 엮은 글들을 추려 모았다. 스님이 직접 쓴 청아하고 반듯한 글씨는 그 자체만으로도 운치가 넘치며 색다른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아름다운인·1만3천500원**)

### 인도방랑=세계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풍경을 자신의 깊은 감성을 섞어 스케치해온 일본인 여행 작가이자 사진가 후지타 신야의 대표작. 스물네살의 나이에 대학을 뛰쳐나와 방랑길에 오른 저자가 1969년~1972년 인도 여행에서 보고 겪은 경험담을 기록했다. 지금보다 상업적인 때가 덜 묻은 인도의 모습이 구체적 담겨 있다.

(**작기정신·1만6천원**)

### 내 지하실의 애연동물=200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김나정씨의 첫 번째 소설집. 등단작 '비틀스의 다섯 번째 멤버'를 비롯해 '이것은 개가 아니다' 등 9편의 작품이 실렸다. 바닷가 소도시에서 남상들의 성 노리개로 전락한 소녀(비틀스의 다섯 번째 멤버), 동생이 유괴 당한 여고생('구') 등 폭력에 노출된 소녀·소년들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

(**문학과 지성사·9천500원**)

### 68혁명을, 세계를 뒤집은, 두 번째, 사나이의...=68혁명을 세계혁명적 차원에서 재조명했다. 68혁명 연구자인 독일의 임그리트 길러홀터 교수의 최근 연구서로 베를린, 런던, 파리에서 베이징, 프랑크, 도쿄까지 전지구적 혁명네트워크로 연결된 현장을 종횡무진 누비면서 1968년에 꽃피운 저항의 물결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창비·1만5천원**)

### 화장품에 대한 50가지 거짓말=화장품 정보와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쉬운 여성들에게 유용한 화장품 안내서. 지금까지 여성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잘못된 뷰티신식 50가지를 엄선해 환상과 진실 형식으로 단순명쾌하게 설명했다. 또 여성들 스스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수 있는 방법과 올바른 미용법도 친절하게 제시해준다.

(**북하우스·1만3천800원**)

### 티베트의 즐거운 지혜=티베트 불교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은계이 밍규르 린포체가 마운다스리의 법을 소개한 책이다. 1975년 네팔 부다리 계곡에서 태어난 은계이 밍규르 린포체는 3세 때 14세기 명상수행자이자 대학자인 은계이 밍규르 도르제의 7대 환생자로 밝혀졌고, 1950년대 고원에서 추방된 티베트 스승 강규르 린포체의 환생이라고도 인정받은 인물이다.

(**문학의숲·1만2천800원**)

# 법원부동산경매정보

국민법률경매(주) 서구청영 광주세무사타운

공인중개사/경매분석사 : 정미경  
TEL : 062-351-0664  
H·P : 010-7628-0664

지역	소재지	면적(㎡/평)	잔액/가	최저가
대구	소제지	777/735	850만	280만
	보성군	1772/5360	280만	280만
	북구	2879/987	280만	180만
	북구	478/183	28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대구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
	북구	2204/4877	190만	180만